

#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논문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30대 이상 한국 성인들이 지닌 태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실적 갈등인식, 경제적 수준 및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전국의 30세 이상 1,6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의 요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긍정적 인지 및 정서 태도에서는 주관적안녕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서는 현실적 갈등인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인 인지 태도에 대해서는 경제수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인지 및 정서 태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는 긍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에 대해 나타났고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이 인지태도와 정서태도 상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인지적 태도와 관련하여 현실갈등인식이 높을 때는 주관적안녕감과 상관없이 긍정적 태도점수가 낮으나, 현실적 갈등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서적 태도와 관련하여, 현실갈등인식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 정서 태도가 다르지 않으나, 현실갈등인식이 높은 경우는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아졌다. 따라서 현실갈등인식에 대한 주관적안녕감의 효과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중 인지와 정서 영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이주노동자, 소수집단, 현실갈등인식, 주관적안녕감

한국사회는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 2009년 현재 국제결혼자가 167,090명에 이르고 있고, 외  
들의 입국으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인 유학생은 77,32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행정안전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8교유과제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의 자료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 및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양계민,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빌딩 9/10F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화: 02)2188-8831, E-mail: yangkm68@hanmail.net

부, 2009),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9월 현재 17,134명이 입국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일부, 2009). 이주노동자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입국하기 시작하여 2009년 4월 현재 551,39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통계청, 2009), 이는 합법적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이고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중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력 공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부족, 한국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임금수준, 3D 업종에서의 노동력 공동화 현상 등의 결과로 나타난 집단으로, 1991년 11월 외국인력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채형복, 2007).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이건 미등록 노동자건 간에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충족시키고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집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 중에서 비교적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 중 하나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더더욱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증거로 심리학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중심 주제로 연구된 논문은 박신혁과 전우영(1998)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상태와 직무관련 만족도를 연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들 속에서 하위 집단으로 다루어진 사례는 있다. 그러나 그 연구들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으며 소수집단 중 특히 부정적인 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김혜숙, 2007). 예를 들면 김혜숙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여러 다수 및 소수집단 중 이주노동자는 신체장애인, 탈북자와 함께 가장 유능하지 않은 집단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계민과 정진경(2008)의 연구에서도 국제결혼가정자녀, 조선족,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국내 소수집단 중 새터민 다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분야는 아니지만 이보다 먼저 설동훈(1996)은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를 조사한 바 있는

데, 한국인의 경우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 '착하다, 부지런하다'는 이미지를, 미등록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9가지 의미분화척도상의 모든 태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적이고, 노예처럼 굴종적이며, 느리고, 소극적이고, 의심스럽고, 멀게 느껴지며, 지저분하고 불쌍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행동 현상으로 이어져 폭행, 욕설, 임금체불,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인간적 대우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박신혁과 전우영(1998)의 연구에서 보면 조사 대상자 172명 중 한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2명으로 전체의 36%에 해당되었고, 폭행의 유형으로는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발길질, 손찌검, 주먹질, 집단폭행, 그리고 각목 등의 도구를 사용한 폭력까지 있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어도 직장에서 받는 차별적 대우도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말,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편견, 한국문화의 강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무지 및 몰이해, 함부로 대하는 태도 등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었고(김수재, 2008), 그 외에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열악한 작업조건, 한국인과의 차별, 모욕, 산업재해, 직업병, 한국인노동자와의 갈등 등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는 고충들이다(설동훈, 1997).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뿐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현상으로, 김혜숙과 박수미(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학력, 동성애자, 미혼모,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 외모, 조선족, 이혼자, 출신지역, 나이든 사람, 여성, 탈북자, 나이 어린 사람 등의 차원을 포함한 총 15 개 집단 중 세 번째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될 경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지니게 될 것이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인도 그가 속한 집단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한 사회 내에서 낙인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행복감,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Pascoe & Richman, 2009).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일관되게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미국 내에서 지각된 차별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oe, & Richman, 2009), 아시아계 미국인과 라틴계 미국인 대학생들의 경우 인종차별을 지각했을 경우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상태불안, 특질불안, 우울증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wang & Goto, 2008), 남아프리카에서도 역시 인종차별에 대한 지각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Gonzalez, Williams, Mohammed, Moomal, & Stein, 2008).

사회 내에서 낙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정체에 대해 부정적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 정체감을 내면화시킨 결과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집단적 자아존중감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Cooley, 1956; Croker & Major, 1989; Mead, 1984).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감으로부터 형성되는데(Gecas & Schwalbe, 1983; White, 1959), 주류집단으로부터의 거부는 통제감을 상실하게 만들고(Ruggiero & Taylor, 1997) 결국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 사회가 특정 집단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구조를 지녔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성 및 강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심리적 구조의

기초를 연구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이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권위주의적 성격이론, 사회정체감이론, 현실적 갈등이론 등과 이에서 발전한 비교적 현대적 이론들이 그것이다. 이 중 현실적 갈등이론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을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본 이론으로,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적개심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반되면서 이 부정적인 평가가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부풀려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Sherif, 1966). Taylor와 Moghaddam(1987)은 현실갈등이론이 세 가지를 가정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둘째, 갈등은 양립되지 않는 집단 이익의 결과 때문에 빚어진다. 셋째, 주로 집단 이익의 양립가능성에 의해 집단 간 행동의 사회·심리적 측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 또는 비호의적 귀인은 두 집단 간의 양립 불가능한 이익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돈, 명성, 천연자원, 에너지 등 가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에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Forsyth, 1999).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남아프리카, 벨기에, 독일 등과 같은 나라에서 인종 간 격리정책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에서 경쟁할 일이 많이 있을 때 편견이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고(Olzak & Nagel, 1986), 다문화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식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현실적 이익이 충돌할 때라는 것(Wimmer, 1977), 다문화사회에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민족을 차별하는 것이 이주 이주자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연구(Coenders, Lunnens, & Scheepers, 2003) 등은 모두 현실적 갈등이론을 지지해주는 연구들이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집단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시각은 현실 갈등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 주장

들을 살펴보면 첫째, 이주노동자들이 장기체류를 통해 스스로의 숙련도를 높여 1차 노동시장의 내국인노동자들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것, 둘째, 장기체류를 통해 복지수혜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사회복지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 셋째,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산업부문에서 내국인노동자들의 충원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은 이 부문의 산업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의 고용 증가 및 이들의 불법취업 증대로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는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 등이다(이변송, 권주안, 1997<sup>1)</sup>). 이 주장들은 이주 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와 경쟁하고, 내국인노동자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우리 사회에 추가적 부담까지 지우는 존재라고 하는 현실적 갈등적 시각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실제 이주노동자집단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보이는 현실갈등적 시각을 보여주는 연구로 양계민(2009)의 연구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지태도 및 긍정적 부정적 정서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모두에서 현실적 갈등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현실적 갈등요인의 강한 영향력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양계민(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히 현실적 갈등인식정도의 독립적 효과의 차이만을 살펴보고,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상이 청소년이었기에 현실적인 갈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성인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의 현실적 갈등인식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현실갈등인식 정도 및 경제적 수준, 그리고 주관적안녕감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위에

서 언급한 Coenders 등의 연구(2003)에 근거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의 자원을 빼앗아 가는 데 대하여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갈등인식에 의해 편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외집단이 자신과 유사한 직무관련성격 특성과 능력을 지녔다고 여길 때였고, 외집단의 유사성을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평가한 후에는 편견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연구결과(Zatate, Garcia, Garza & Hitlan, 2004)와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군석, 한덕웅, 2002) 등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모든 태도에 있어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여러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직접적인 단일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은 사회를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며,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과 정서적 요소에 해당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Diener, 1984;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고(Kahn & Isen, 1993), 타인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증가시키며(Waugh & Fredrickson, 2006), 낙관주의 경향과 관련이 있고(Compton, 2005;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성취, 직업, 결혼 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며(Veenhoven, 1989), 자신의 수행에 대한 우울감 및 높은 생활만족도를 지니고(Headey & Veenhoven, 1989), 실험과제에서 자신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wn, 1984; Wright & Mischel, 1982). 요약하자면 삶의 만족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더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하고(Veenhoven, 1988, 1989), 삶에 대해 만족할 경우 자신과 세상에 대한 폭 넓은 통찰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함으로써 낙관주의와 같

1)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반박되고 있다(고형면, 2006)

은 자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재선, 2009). 직접적으로 실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이 개방성과 낙관성의 결과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를 지녔다고 하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 내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소수집단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경제수준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현실적 갈등적 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sup>2)</sup>.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태도 영역은 태도의 삼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sup>3)</sup>. 각 요소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지요소는 태도대상에 대하여 소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상념과 그 지식을 말하는데, 태도의 인지요소가 갖는 특징은 복잡성과 수시로 변하는 변화성에 있다. 이에 비해 정서요소는 태도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태도 대상에 대하여 지닌 호오적 평가를 말한다. 인지요소의 복잡성과 달리 정서요소는 단순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태도 대상에 대해 인지요소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은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인지요소가 망각된 이후에도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되며(Aderson & Hubert, 1963)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행동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호의적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김혜숙, 1999).

이는 다시 말하면 태도의 세 가지 측면이 서로 다른 근원을 지니며 그에 따라 작동기제가 다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적, 감정적 측면과 행동의도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감정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인지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보다 태도나 행동을 더 잘 예언할 수 있었던 국내 연구(박군석, 한덕용, 2002)와 남아공의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항의의도 경향성을 측정 한 결과, 감정적 박탈이 33%를, 인지적 박탈이 2.3%를 설명했음을 보여준 연구(Rey & Raju, 1996; 김금미, 한영석, 2008재인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나 차별을 예언하는 데 있어 인지보다 감정이 더 잘 예언해준다는 연구들(Dovidio, Brigham, Johnson & Gaertner, 1996; Haddock, Zanna, & Essess, 1993, 1994; Stangor, Sullivan & Ford, 1991; Stephan, Ageyev, Coates-Shirder, Stephan & Abalakina, 1994)은 태도의 각 요소들이 서로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태도의 삼요소 중 일부 또는 모두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차별적 행동측면을 측정하였고,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 정서, 사회적 거리의 세 요소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김혜숙(2007)의 연구에서도 호감도, 신뢰성, 사회적 거리감의 세 요소를 측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지니는 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현실적 갈등인식요인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며, 셋째, 현실적 갈등인식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2)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전체 중 혼혈인이나 외국인과 1주일에 1회 이상 접촉하는 사람은 136명이었고, 이들이 친밀한 관계인 친구나 가족인 경우는 3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깊은 수준의 접촉은 없는 상태의 관념적 태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접촉수준에 따른 분석을 하기에는 비교집단의 숫자가 너무 적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인간의 마음을 지(知), 정(情), 의(意)의 3요소로 분석해 오던 전통에 맞추어, 태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Olson & Zanna, 1993).

**방 법**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성인남녀 1,600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에서 표집을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8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층화무선할당표집을 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그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분석하였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모두 포함한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포괄적 조사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집단	남	여	Total
연령	30대	12 ( .8)	213 (13.4)	225 (14.1)
	40대	295 (18.5)	941 (59.1)	1236 (77.7)
	50대 이상	57 ( 3.6)	73 ( 4.6)	130 ( 8.2)
거주 지역	서울	80 ( 5.0)	280 (17.6)	360 (22.6)
	경기	73 ( 4.6)	323 (20.3)	396 (24.9)
	강원	40 ( 2.5)	58 ( 3.6)	98 ( 6.2)
	충청	36 ( 2.3)	88 ( 5.5)	124 ( 7.8)
	경상	109 ( 6.9)	331 (20.8)	440 (27.7)
	전라	26 ( 1.6)	147 ( 9.2)	173 (10.9)
	대도시	194 (12.2)	706 (44.4)	900 (56.6)
거주지 규모	중소도시	113 ( 7.1)	381 (23.9)	494 (31.0)
	군지역	57 ( 3.6)	140 ( 8.8)	197 (12.4)
가정 형편	아주 어렵다	13 ( .8)	22 ( 1.4)	35 ( 2.2)
	어려운 편이다	60 ( 3.8)	196 (12.4)	256 (16.2)
	보통이다	253 (16.0)	872 (55.1)	1125 (71.1)
	잘 사는 편이다	24 ( 1.5)	119 ( 7.5)	143 ( 9.0)
	아주 잘 산다	10 ( .6)	13 ( .8)	23 ( 1.5)

※ 무응답은 빈도표에서 제외함.

4) 이 때 학부모 설문은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고, 회수율이 100%가 아니었기에 본 연구의 표집은 층화무선할당표집이 아님을 밝힌다.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는 총 1,600명으로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문항**

본 연구를 위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갈등인식정도, 경제적 수준,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인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중 인지적 측면은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기존의 문헌에서 밝혀진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유능성, 도덕성, 성실성, 공격성, 신뢰성, 공손함 등 6가지 요인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문항 각각 2가지씩 제작하여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다’, ‘거부감이 든다’, ‘친절하다’, ‘거만하다’, ‘유능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도덕적이다’, ‘게으르다’, ‘합리적이다’, ‘감정적이다’, ‘평화적이다’, ‘폭력적이다’ 등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응답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는 긍정적 태도가  $\alpha=.78$ 이고 부정적 태도가  $\alpha=.70$ 이었다.

**정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중 정서적 측면은 역시 양계민과 정진경(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연민정서 3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문항은 ‘정이 간다’, ‘불쌍하다’, ‘피하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다’, ‘가없다’, ‘안되보인다’, ‘싫다’, ‘좋다’, ‘두렵다’ 등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긍정적 정서가  $\alpha=.64$ , 부정적 정서가  $\alpha=.80$ , 연민정서가  $\alpha=.87$ 로 긍정적 정서의 신뢰도가 약간 낮은 편이었다.

**행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중 행동적 측면은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는데, 이주노동자를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내 자녀와 결혼시킬 수 있다’ 등의 총 여섯 개 문항을 구성하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와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우며 수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4$ 였다.

### 현실적 갈등인식

현실적 갈등인식은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의 ‘종족적 배제주의’라고 정의한 개념 중 ‘이주로 인한 위협’이라는 요인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자(2007)등이 번역하고 수정한 척도로 ‘이주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주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의 총 세 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세 문항의 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황정미 등(2007)의 척도에서는 원래 ‘이주로 인한 위협’, ‘이주자 시민권 찬성’, ‘다문화 사회의 긍정성’, ‘이주자 송환정책 찬성’의 네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이 중 ‘이주로 인한 위협’이 현실적 갈등의 인식의 개념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인이었기에 ‘이주로 인한 위협’의 한 요인을 사용하였다.

### 경제적 수준

경제적 수준은 자신의 가정경제 수준에 대하여 ‘아주 어렵다(1)’, ‘어려운 편이다(2)’, ‘보통이다(3)’, ‘잘 사는 편이다(4)’, ‘아주 잘 산다(5)’의 5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Diener(1994)의 주관적안녕감 척도 6개 문항과,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문항을 포함하여 총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었고, 신뢰도는  $\alpha=.89$ 였다.

## 결 과

###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평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거주지 규모별 및 가정경제수준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선 성별의 차이를 보면, 사회적 거리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주노동자를 더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라서 부정적인 인지태도와 긍정적 정서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인지태도에서는 강원, 충청, 서울지역의 점수가 가장 높아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긍정적인 정서는 강원, 전라, 충청, 경상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 나타나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과 거주지 크기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현실갈등인식과 주관적안녕감의 차이

다음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세 변인에 대한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의 집단이 30대와 40대에 비해 현실적 갈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안녕감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 번째, 거주지역

표 2.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집단	인지긍정	인지부정	정서긍정	정서부정	정서연민	거리감
	전체평균 <sup>5)</sup>	2.95 (.45)	2.67 (.52)	2.85 (.54)	2.63 (.68)	3.09 (.75)	2.82 (.64)
성별	남	2.98 (.49)	2.66 (.55)	2.90 (.52)	2.61 (.66)	3.05 (.71)	2.89 (.66)
	여	2.94 (.43)	2.67 (.51)	2.84 (.55)	2.64 (.68)	3.10 (.77)	2.80 (.64)
	<i>t</i>	-	-	-	-	-	2.32*
연령	30대성인	2.94 (.38)	2.70 (.52)	2.79 (.55)	2.65 (.68)	3.04 (.82)	2.86 (.68)
	40대성인	2.95 (.46)	2.66 (.51)	2.87 (.54)	2.63 (.68)	3.10 (.74)	2.81 (.64)
	50대성인	2.95 (.48)	2.66 (.53)	2.83 (.54)	2.58 (.67)	3.02 (.72)	2.87 (.60)
	<i>F</i>	-	-	-	-	-	-
거주 지역	서울	2.94 (.49)	2.69 (.52) <sub>ab</sub>	2.81 (.53) <sub>b</sub>	2.60 (.61)	3.04 (.74)	2.81 (.59)
	경기	2.93 (.43)	2.65 (.50) <sub>b</sub>	2.81 (.56) <sub>b</sub>	2.67 (.72)	3.11 (.79)	2.81 (.66)
	강원	2.93 (.41)	2.78 (.52) <sub>a</sub>	2.95 (.46) <sub>a</sub>	2.66 (.57)	3.04 (.63)	2.84 (.60)
	충청	2.90 (.51)	2.78 (.56) <sub>a</sub>	2.88 (.52) <sub>ab</sub>	2.75 (.66)	3.09 (.77)	2.82 (.67)
	경상	2.97 (.43)	2.62 (.50) <sub>b</sub>	2.88 (.55) <sub>ab</sub>	2.61 (.72)	3.10 (.77)	2.85 (.66)
	전라	2.99 (.44)	2.62 (.53) <sub>b</sub>	2.91 (.52) <sub>ab</sub>	2.54 (.65)	3.12 (.70)	2.80 (.68)
	<i>F</i>	-	3.23**	2.44*	-	-	-
거주지 규모	대도시	2.96 (.46)	2.65 (.51)	2.85 (.55)	2.63 (.68)	3.08 (.73)	2.81 (.62)
	중소도시	2.93 (.40)	2.69 (.51)	2.85 (.51)	2.65 (.66)	3.10 (.76)	2.85 (.67)
	군지역	2.95 (.49)	2.66 (.54)	2.89 (.57)	2.57 (.72)	3.10 (.84)	2.81 (.65)
	<i>F</i>	-	-	-	-	-	-
경제 수준	아주 어렵다	2.83 (.52)	2.75 (.44)	2.91 (.54)	2.68 (.72)	3.12 (.71)	2.56 (.91) <sub>b</sub>
	어려운 편이다	2.94 (.44)	2.66 (.53)	2.84 (.53)	2.61 (.67)	3.09 (.76)	2.82 (.65) <sub>a</sub>
	보통이다	2.95 (.43)	2.66 (.50)	2.87 (.52)	2.63 (.67)	3.07 (.74)	2.84 (.62) <sub>a</sub>
	잘 사는 편이다	2.97 (.56)	2.67 (.60)	2.76 (.64)	2.66 (.71)	3.15 (.83)	2.76 (.69) <sub>ab</sub>
	아주 잘 산다	2.91 (.65)	2.81 (.72)	2.94 (.70)	2.60 (.92)	3.14 (.72)	3.08 (.82) <sub>a</sub>
	<i>F</i>	-	-	-	-	-	2.43*

\*  $p < .05$ , \*\*  $p < .01$ , Duncan: a>b

5) 이주 노동자집단에 대한 태도를 국내 다른 소수집단인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등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인지긍정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의 평균이 3.04, 새터민이 2.93, 조선족이 2.90이었으며, 인지부정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58, 새터민이 2.63, 조선족이 2.66, 정서긍정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94, 새터민이 2.92, 조선족이 2.81, 정서부정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44, 새터민이 2.55, 조선족이 2.55, 정서연민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70, 새터민이 3.01, 조선족이 2.78,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98, 새터민이 2.91, 조선족이 2.8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지니

에 따른 세 변인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감동의 인식수준의 경우 강원, 충청, 서울, 전라, 경기, 경상 순이었고,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는 경기, 경상, 충청지역이 가장 높고 서울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있으며 연민의 정서가 높고 사회적 거리감은 가장 먼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현실갈등인식,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집단	현실갈등인식	주관적안녕감
성별	남자		2.66 (.84)	3.02 (.69)
	여자		2.64 (.76)	3.03 (.74)
	<i>t</i>		-	-
연령	30대		2.58 (.80) <sub>b</sub>	3.06 (.76)
	40대		2.64 (.77) <sub>b</sub>	3.03 (.71)
	50대 이상		2.80 (.85) <sub>a</sub>	2.94 (.79)
	<i>F</i>		3.36*	-
거주 지역	서울		2.71 (.77) <sub>ab</sub>	2.89 (.71) <sub>c</sub>
	경기		2.59 (.76) <sub>ab</sub>	3.11 (.77) <sub>a</sub>
	강원		2.76 (.65) <sub>a</sub>	2.99 (.60) <sub>abc</sub>
	충청		2.74 (.89) <sub>ab</sub>	3.06 (.66) <sub>ab</sub>
	경상		2.58 (.75) <sub>b</sub>	3.08 (.72) <sub>ab</sub>
	전라		2.67 (.88) <sub>ab</sub>	2.93 (.72) <sub>bc</sub>
	<i>F</i>		2.31*	4.68***
거주지 규모	대도시		2.66 (.79)	2.96 (.74) <sub>b</sub>
	중소도시		2.63 (.78)	3.11 (.70) <sub>a</sub>
	군지역		2.60 (.75)	3.07 (.72) <sub>a</sub>
<i>F</i>		-	6.67***	
경제 수준	아주어렵다		2.87 (.99) <sub>ab</sub>	2.21 (.60) <sub>e</sub>
	어려운편이다		2.74 (.77) <sub>ab</sub>	2.52 (.69) <sub>d</sub>
	보통이다		2.63 (.77) <sub>ab</sub>	3.09 (.65) <sub>c</sub>
	잘사는 편이다		2.54 (.77) <sub>ab</sub>	3.48 (.71) <sub>b</sub>
	아주 잘산다		2.62 (1.13) <sub>b</sub>	3.86 (.79) <sub>a</sub>
	<i>F</i>		-	78.00***

\*  $p < .05$ , \*\*  $p < .01$ , \*\*\*  $p < .001$ , Duncan: a>b>c>d>e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인식, 경제수준,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인식수준, 경제수준 및 주관적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갈등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는 낮아지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 태도는 높아지며, 사회적 거리감은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관적 안녕

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가 높아지고, 부정적 인지 및 정서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유사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질수록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적 수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현실갈등인식정도는 낮고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현실갈등인식, 주관적안녕감, 경제수준의 관계

	현실갈등 인식	주관적 안녕감	경제 수준	인지 긍정	인지 부정	정서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연민	거리감
현실갈등인식									
주관적안녕감	-.04								
경제수준	-.07**	.40***							
인지긍정	-.13***	.14***	.03						
인지부정	.24***	-.08**	.00	-.10***					
정서긍정	-.08**	.11***	-.02	.35***	-.06*				
정서부정	.22***	-.07**	.01	-.18***	.46***	-.12***			
정서연민	-.05	.02	.01	.05	.07*	.28***	.19***		
거리감	-.21***	.08**	.03	.35***	-.10***	.42***	-.25***	.08**	

\*  $p < .05$ , \*\*  $p < .01$ , \*\*\*  $p < .001$

**현실갈등인식, 경제수준, 주관적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현실갈등인식수준, 경제수준,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Enter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는데, 세 개의 독립변인 모두에서 Tolerance는 .9이상이었다. 따라서 세 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갈등인식과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 항은 두 변인을 중심화(centering)한 후 곱한 값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은 현실갈등인식과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였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검증은 배제되었다.

우선 현실갈등인식, 경제수준,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 결과, 인지 및 정서의 긍정적인 태도영역에서는 주관적안녕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태도영역과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현실갈등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안녕감이 클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부정적인 태

도와 행동에서는 현실갈등인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수준의 영향은 부정적 인지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지와 정서수준이 높아지고, 긍정적 정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민정서와 사회적거리감에 대하여 경제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비교해본 결과 인지 및 정서의 긍정적인 태도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태도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작용효과の内容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각각 상위 25%와 하위 25%집단에 속한 사례를 선발하여 긍정적 인지태도와 긍정적 정서태도의 평균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서 주관적안녕감의 조절효과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지태도를 먼저 살펴보면, 현실적 갈등의 인식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태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실적 갈등인식의 수준이 낮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표 5. 현실갈등인식, 주관적만족감,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2$	$\Delta R^2$
인지 긍정	1단계	주관적안녕감	.15	5.19***	.035	
		현실갈등인식	-.13	-4.96***		
		경제수준	-.03	-1.05		
	2단계	주관적안녕감	.15	5.33***	.044	
		현실갈등인식	-.12	-4.86		
		경제수준	-.03	-1.21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10	-3.74***		
인지 부정	1단계	주관적안녕감	-.10	-3.63***	.069	
		현실갈등인식	.25	9.95***		
		경제수준	.07	2.43*		
	2단계	주관적안녕감	-.10	-3.56***	.071	
		현실갈등인식	.25	9.99***		
		경제수준	.06	2.34*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04	-1.69		
정서 긍정	1단계	주관적안녕감	.14	5.16***	.023	
		현실갈등인식	-.08	-2.93**		
		경제수준	-.08	-2.86**		
	2단계	주관적안녕감	.14	5.14***	.026	
		현실갈등인식	-.08	-2.97**		
		경제수준	-.08	-2.79**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06	2.19*		
정서 부정	1단계	주관적안녕감	-.09	-3.12**	.057	
		현실갈등인식	.23	9.02***		
		경제수준	.06	2.13*		
	2단계	주관적안녕감	-.09	-3.13**	.058	
		현실갈등인식	.23	9.01***		
		경제수준	.06	2.17*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03	1.26		
정서 연민	1단계	주관적안녕감	.02	.82	.050	
		현실갈등인식	-.04	-1.64		
		경제수준	.00	.16		
	2단계	주관적안녕감	.02	.81	.057	
		현실갈등인식	-.04	-1.64		
		경제수준	.00	.20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03	1.02		
사회적 거리감	1단계	주관적안녕감	.09	3.28***	.054	
		현실갈등인식	-.22	-8.54***		
		경제수준	-.02	-.86		
	2단계	주관적안녕감	.09	3.28***	.054	
		현실갈등인식	-.22	-8.55***		
		경제수준	-.02	-.83		
		현실갈등인식*주관적안녕감	.02	.61		

\*  $p < .05$ , \*\*  $p < .01$ , \*\*\*  $p < .001$

은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 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안녕감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때는 현실적 갈등이 낮을 때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긍정적 정서태도의 경우는 현실갈등인식이 낮을 때 주관적안녕감의 차이가 없지만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는 주관적안녕감이 낮은 집단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실갈등인식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태도가 다르지 않으나, 현실갈등인식이 높을 때,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 경우 긍정적 정서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갈등인식에 대한 주관적안녕감의 효과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중 인지와 정서영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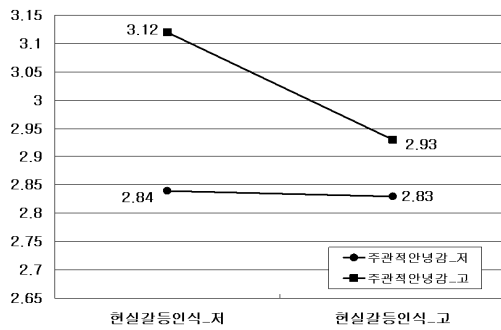


그림 1.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지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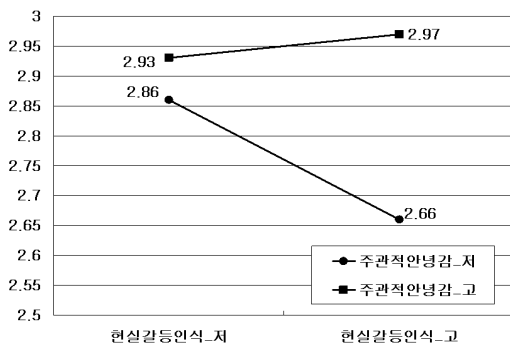


그림 2. 현실갈등인식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태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 논 의

본 연구는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현실적 갈등인식 요인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며, 셋째, 현실적 갈등인식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거주지 규모별, 경제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사회적 거리감에서 남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태도 측면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30대, 40대, 50대 이상 성인집단의 태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부정적 인지와 긍정적 정서태도에서만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의 부정적 인지태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서울, 경기 지역이었으며, 경상전라지역의 부정적 인지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긍정적 정서에서 강원도, 전라도, 충청 및 경상도 지역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서울경기 지역의 긍정적 정서 태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이주노동자 또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분포와 이에 따른 접촉가능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인데, 경기지역의 경우 인지적 측면에서 부정점수는 낮은 편이고 정서 측면에서의 긍정적 점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상적인 수준에서의 접촉수준이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태도는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특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지 추측일 뿐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접촉수준에 따른 차이를 재분석해야 할 것이며, 기타 다른 요인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거주지 규모에 따른 차이는 모든 태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모든 태도영역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감에서 나타났다. 즉 아주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장 덜 수용적이고 나머지 집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외집단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후 분석한 상관관계분석에서 경제적 수준과 거리감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고, '잘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태도도 역시 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수준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미한 직접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현실갈등인식수준은 낮고 주관적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Veenhoven, 1994a; Haring, Stock, & Okun, 1984; Diener, Sandvik, Seidlitz, & Diener, 1993; Oswald,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현실갈등인식, 경제수준, 주관적안녕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영향력을 주는 변인이 달라졌다. 즉,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에서는 주관적안녕감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현실적 갈등인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태도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태도가 서로 동일한 차원의 다른 방향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측면의 태도는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부정적인 측면의 태도는 상대집단의 위협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그렇다면 향후 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인지 및 정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외집단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어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를 감소

시키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인지 및 긍정적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양상을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부정적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기존의 결과(박근석, 한덕웅, 2002; Coenders, et al., 2003; Wimmer, 1977; Zatale, et al., 2004)들과는 일관되지 않는 결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경제적 수준보다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현실적 갈등인식과 주관적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임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의 관점에 보면 고무적인 결과로 만일 경제수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것은 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심리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교육에서 다루기에 적합하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등 고정관념 형성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내용구성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현실갈등인식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관적안녕감이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태도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긍정적인 태도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현실갈등에 대한 주관적안녕감의 효과가 태도의 인지와 정서 영역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현실갈등인식의 수준이 높을 때는 주관적안녕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긍정적 인지태도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으나 현실적갈등인식의 수준이 낮을 때는 주관적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높아졌다. 이에 비해 긍정적 정서태도와 관련하여, 현실갈등인식 수준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의 높고 낮음에 따른 긍정적 정서태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현실갈등인식 수준이 높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 긍정적 정서태도의 점수가 낮아졌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한꺼번에 놓고 보자면, 현실갈등인식이 낮을 때는

주관적안녕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인지적 태도를 증가시키고, 현실갈등인식이 높을 때는 주관적안녕감이 낮은 것이 긍정적 정서적 태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 정서가 낮아지는 문제는 현실갈등인식이 높으면서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편견 감소방안은 앞서도 말했듯이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친다거나 국내 노동자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국 3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갈등인식과 경제수준 및 주관적안녕감 등의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갈등인식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계민, 2009)에서도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성인집단에서도 현실갈등인식이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를 성인집단에까지 확대시켰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현실갈등인식의 일차원적인 영향만을 분석했던 것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조사대상자와 관련하여 전국에서 수집하기는 했으나 학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30대 이상 학부모집단이라는 대상에 국한되었고, 설문지 수거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여자의 비율이 남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한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 분석이 수행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연구에서 다루어질 문제로 집단 간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수준의 측정이 실제 월수입과 같은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잘산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였다는 점이다. 경제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성을 고려해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월수입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현실갈등인식과 경제수준 및 주관적 안녕감 등 극히 일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되었기에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여부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본 연구가 이주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중 일부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후 연구에서는 접촉여부, 접촉의 수준 및 접촉의 빈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고형면 (2006).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통권 28호, 6-19.
- 구재선 (2009). 행복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1호, 165-179.
- 김금미, 한영석 (2008). 여성의 사회정체성 관리전략: 사회구조 요인, 성별사회정체성,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권 4호, 453-477.
- 김수재 (2008).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대응. 민족문화논총, 38호, 153-184.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권 4호, 973-1002.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권 4호, 91-104.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1호, 1-33.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권 3호, 121-143.
- 김혜숙, 박수미 (2006). 집단지위 정당성, 지위안정성 및 집단정체성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과 학벌차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권 4호, 71-95.
- 박군석, 한덕웅 (2002). 영호남의 상대적박탈에서 사회구조 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01-402.
- 박신혁, 전우영 (1998).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직무관련 만족도. '98 *한국심리학회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779-786.
- 설동훈 (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 (1997).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권, 1-28.
-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권 1호, 119-136.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권 2호, 59-79.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권 특집호, 97-115.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연구. 연구보고서. 08-R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변승, 권주안 (1997). 외국인근로자고용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방향, 송병준 외(저),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채형복 (2007). EU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제 13권 1호, 377-406.
- 통계청 (2009). 통계청 홈페이지.
- 통일부 (2009). 2009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보도자료.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자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derson, N., & Hubert, S. (1963). Effects of concomitant verbal recall on order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379-391.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rown, J. (1984). Effects of induced mood on causal attribution for success and failure. *Motivation and Emotion*, 8, 343-353.
- Coenders, M., Lunners, M., & Scheepers, P.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Venter on Racism and xenophobia*, <http://eumc.int>.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son Wadsworth.
- Cooley, C. H. (1956).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a). Influences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vidio, J. F., Brigham, J. C., Johnson, B. T., & Gaertner, S. L.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N. Macrae, C. Strangor, & M. Hewatone(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pp. 276-319). New York: Guilford.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ujita, F.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neuroticism,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ecas, V., & Schwalbe, M. L. (1983). Beyond the looking-glass self: Social structures and efficacy-based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77-88.
- Gray, J. A. (1991). Neutral systems, emotion, and personality. In J. Madden, IV (Ed.), *Neurobiology of learning, emotion, and affect* (pp. 273-306). New York: Raven Press.
- Haddock, G., Zanna, M. P., & Essess, V. 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05-1118.
- Haddock, G., Zanna, M. P., & Essess, V. M. (1994). The limited role of trait-laden stereotypes in predicting attitudes toward native peopl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83-106.
- Haring, M. J., Stock, W. A., & Okun, M. A. (1984). A research synthesis of gender and social class as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 being. *Human Relations*, 37, 645-657.
- Headey, B., & Veenhoven, R. (1989). Does happiness induce a rosy outlook? In R. Veenhoven(Eds.).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pp. 106-127).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Hwang, W., & Goto, S. (2008). The impact of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 and Latino College Stud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4), 326-335.
- Kahn, B. E., & Isen, A. M. (1993).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variety seeking among safe, enjoyable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257-270.
- Lucas, R. E., Diener, E., Grob, A., Suh, E., & Shao, L. (1998). *Cross-cultural evidence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extraversion: The case against socialit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Olson, J., & Zanna, M. (1993).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17-154.
- Olzak, S., & Nagel, J. (1986).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Journal*, 107, 1815-1831.



- Pascoe, E. A., & Richman, L. S.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Quinn, D. M., & Chaudoir, S. R. (2009). Living with a concealable stigmatized identity: The Impact of Anticipated stigma, centrality, salience, and cultural stigma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634-651.
- Rey, C. & Raju, P. (1996). Group relative deprivation: Cognitive versus affective components and protest orientation among indian South Africa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5), 579-588.
- Ruggiero, K. M., &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73-389.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Stephan, W. G., Ageyev, V., Coates-Shirder, L., Stephan, C. W., & Abalagina, M. (1994).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and prejudice: An internatio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77-284.
- Suh, E. M. (1998). *Self and the use of emotion information: Joining culture, personality, and situational influence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Praeger.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33-354.
- Veenhoven, R. (1994a). *Correlates of happiness: 7,836 findings from 603 studies in 69 nations: 1911-1994*. Unpublished manuscript,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The Netherlands.
- Veenhoven, R. (Eds.)(1989). *How harmful is happiness? consequences of enjoying life or not?* Rotterdam, The Netherlands: University Press Rotterdam.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93-106.
- White, R. W.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36*, 1211-1220.
- Williams, D. R., Gonzalez, H. M., Williams, S., Mohammed, S. A., Moomal, H., Stein, D. J.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race and health in South Af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441-452.
- Wimmer, A. (1977). Explaining xenophobia and racism: a critical revise of current research approaches, *Ethnic and Racism Studies, 20*(1), 17-41.
- Wright, J., & Mischel, W. (1982). Influence of affect on cognitive social learning person variab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01-914.
- Zátate, M. A., Garcia, B., Garza, A. A., & Hitlan, R. (2004). Cultural threat and perceived realistic group conflict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s Mexican immigra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99-106.

## The Influence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Perceived Economic Level on the Attitude of Immigrant Employees: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Kye-Min Ya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ttitudes toward the immigrant employees of Koreans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e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perceived economic level,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the purpose, 1,600 adults who are 30 years old and over completed a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such as feeling of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economic level, and the attitude toward the immigrant employees.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subjective well-being was the most effective factors in posi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toward immigrant employees, but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was the most effective in nega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Second, perceived economic level influenced to negative cognitive attitude and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attitude. Thir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ppeared in positive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but not in negative attitude. Fourth, the interaction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was appeared differently in cognitive and emotional attitude toward immigrant employees.

*Keywords* : immigrant employee, minority group, realistic conflict theory, subjective well-being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10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25일